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성경본문 <민수기 17장 1절 ~ 11절>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둘을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3]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4]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5]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6]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둘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7]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8]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9]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10]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11] 모세가 곧 그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민수기 16장에, 고라가 모세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이 우선하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이끄는 총회가 우선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 16:3)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고라, 그리고 고라와 함께 한 사람들을 백성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이셨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 분향하는 이백오십 명을 불살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염병이 백성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고, 아론이 모세의 말대로 얻은 향로를 들고,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 사이에 섰을 때에야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각 종족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서 그 위에 이름을 쓰고,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있는 리더십의 혼란을 직접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1.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5]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과 17장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리더가 되는 일에 집착하였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미 수없이 많이 기적이 일어났고, 심지어 고라가 백성들의 눈 앞에서 땅이 갈라져 그 속으로 빠지는 것도 보았는데도 여전히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고, 자신들을 이끌어 줄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인도하셨던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들의 욕심을 앞세운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세우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에 사용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을 이끌어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나무인 지팡이에서, 생명이 움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2. 움이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는 삶

[8]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9]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싹이 돋는 것인데, 실제로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는 식물이 보이는 생장의 모든 단계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움이 돋고, 순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각각 시간의 흐름대로 순차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인데, 아론의 지팡이에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지팡이에서 생명의 싹을 보는 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그 곳에서 아예 식물의 성장과정을 다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며, 당신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우리들에게도 생명을 보게도 하시고, 꽃피게도 하시며, 열매를 맺게도 하신다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 인생이 꽃피는 은혜, 열매 맺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
2. 생명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삶 가운데 누리지게 하소서.